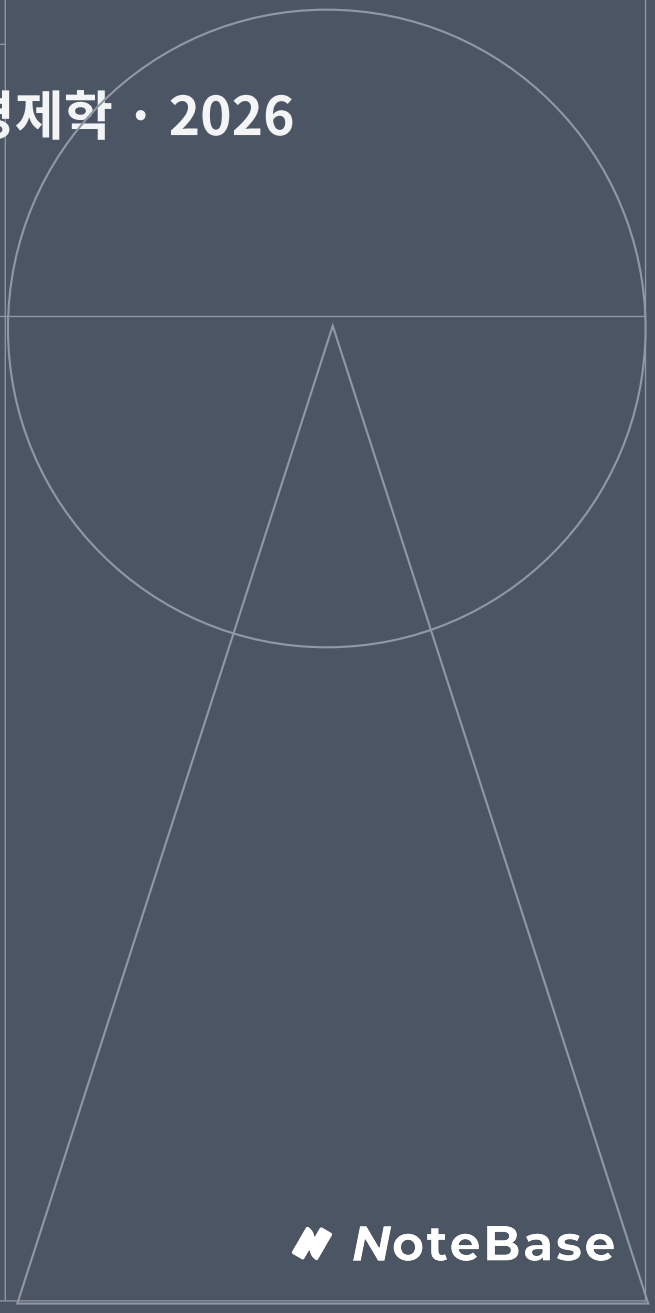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경위) · 경제학 · 202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경위) · 경제학 · 2026

공무원/경찰/공채(경위) · 경제학 · 2026

문 1. 매몰비용(sunk cost)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경제에서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의 조합을 의미한다.

② 선택하였을 때 얻게 되는 유·무형의 가치를 의미한다.

③ 일단 지출하고 난 뒤에는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의미한다.

④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부추기는 자극을 의미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매몰비용을 가르는 기준은 **이미 발생한 비용을 현재 선택으로 회수할 수 없는가**이다. 이 비용은 앞으로 어떤 대안을 택해도 되돌릴 수 없으므로 미래 선택의 차이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제외한다.

개념 구분

매몰비용은 **이미 발생했고 현재의 선택을 바꾸어도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다. 예를 들어 환불이 불가능한 지출은 사업을 계속하든 중단하든 되돌릴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의 선택에서는 이 금액을 되찾으려는 집착보다 선택에 따라 달라질 미래의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야 한다.

과거에 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매몰비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구입한 자산을 되팔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자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과 관련되므로 따로 고려해야 한다.

①은 주어진 자원과 기술로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상품 조합, 즉 생산가능곡선의 설명이다.

②는 선택으로 얻는 유·무형의 가치인 편익,

④는 행동을 유도하거나 억제하는 유인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미 지출한 뒤 회수할 수 없다는 조건을 제시한 ③이 매몰비용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2. X재의 수확량이 감소하고, 동시에 X재를 사용한 음식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X재 가격과 거래량에 미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단, X재는 수요와 공급법칙이 적용되며, 직선의 형태이다.)

① 가격은 상승하지만 거래량의 변화는 불확정적이다.

②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③ 가격의 변화는 불확정적이지만 거래량은 증가한다.

④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수확량 감소는 공급 감소, 건강 인식 확산은 수요 증가이다. **두 변화 모두 가격을 올리지만 거래량 효과는 반대**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핵심 풀이

수확량 감소는 공급 감소를, 건강에 좋다는 인식의 확산은 수요 증가를 뜻한다. 두 변화 모두 **균형가격을 상승**시키지만 거래량에 미치는 방향은 반대이므로,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 변화는 불확정적인 ①이 옳다.

공급 감소만 따로 보면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여 가격은 오르고 거래량은 줄어든다. 반면 수요 증가만 따로 보면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증가한다.

동시에 발생하면 가격 상승 효과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거래량은 수요 증가의 확대 효과와 공급 감소의 축소 효과가 맞서므로, 곡선의 이동 폭과 기울기에 따라 증가·감소·불변이 모두 가능하다. **직선이라는 조건만으로는 두 효과의 상대적 크기를 알 수 없다.**

NoteBase

문 3. 갑의 소득은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증가했고, 라면에 대한 지출은 20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감소하였다. 갑의 라면에 대한 특성으로 옳은 것은?

① 정상재이고 필수재이다.

② 정상재이고 사치재이다.

③ 열등재이고 필수재이다.

④ 수요는 탄력적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가격 등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소득 증가와 함께 라면 수요가 줄어들므로 **열등재**이다. 소득 중 라면 지출비중도 낮아지므로, 지출비중 감소를 기준으로 하는 넓은 의미에서는 **필수재**에도 해당한다.

개념 구분

열등재 판단: 소득 변화에 따른 수요를 비교할 때는 가격 등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전제한다. 이 전제에서 라면 지출이 20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감소했다는 것은 수요량도 감소했다는 뜻이다. 소득은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증가했으므로 **소득이 늘 때 수요가 줄어드는 열등재**이다. 정상재는 반대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한다.

필수재 판단: 여기서는 필수재를 **소득이 증가할 때 지출비중이 낮아지는 재화**라는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라면 지출비중은 $\frac{20}{100} \times 100 = 20\%$에서 $\frac{19}{110} \times 100 \approx 17.27\%$로 감소한다. 이 정의에서는 열등재도 필수재에 포함되며, 소득 증가에 따라 지출비중이 커지는 사치재와 구별된다. 필수재를 정상재 중 소득탄력성이 0과 1 사이인 재화로만 한정하는 좁은 용법과는 구분한다.

탄력성 구분: 최초 값을 기준으로 소득 증가율은 $\frac{110-100}{100} \times 100 = 10\%$이고, 가격이 일정할 때 수요량 변화율은 $\frac{19-20}{20} \times 100 = -5\%$이다. 소득탄력성은 $\frac{-5\%}{10\%} = -0.5$로 음수이다. 이는 소득에 대한 반응이며, 가격 변화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문항의 필수재 정의에 따르면 라면은 열등재이면서 필수재이므로 ③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4. 베블렌 효과(Veblen effect)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형태가 된다.

② 명품을 찾는 사람들의 욕구를 설명할 수 있다.

③ 과시성 소비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이다.

④ 소비자들의 선호가 상호의존적인 경우에 발생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베블렌 효과에서는 높은 가격이 부와 지위를 과시하는 가치를 높여 **가격 상승이 수요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이 이 효과의 특징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선지별 해설

베블렌 효과는 비싼 가격이 부와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신호로 작용하여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높이는 현상이다. 재화의 실용적 기능뿐 아니라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도 소비의 가치를 결정한다.

① X: 베블렌 효과가 일반적인 가격 상승의 수요 억제 효과보다 강하게 작용하면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량이 늘어나는 구간**이 나타날 수 있다. 이 구간의 수요곡선은 우상향하므로 우하향을 베블렌 효과의 특징으로 설명한 것은 잘못이다. 모든 가격대에서 반드시 우상향한다는 뜻은 아니다.

② O: 명품의 높은 가격과 브랜드가 부나 지위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지면 이를 소유하려는 욕구가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지위의 상징을 얻으려는 명품 소비**를 설명한다. 다만 품질이나 디자인 때문에 구매하는 경우까지 모두 베블렌 효과라고 할 수는 없다.

③ O: 자신의 경제력과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려는 **과시적 소비**가 핵심 동기이다. 높은 가격 자체가 과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보통의 가격 효과와 구별된다.

④ O: 소비의 만족이 물건 자체의 효용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타인의 평가와 사회적 비교**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의미에서 소비자들의 선호를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만 볼 수 없는 상호의존적 소비 현상이다. 다른 사람이 많이 산다는 이유로 따라 사는 편승효과와는 강조점이 다르다.

따라서 수요곡선의 우하향을 베블렌 효과의 특징으로 제시한 ①이 옳지 않다.

NoteBase

문 5. 수요의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상재의 경우,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양(+)의 값을 갖는다.

② 대체재가 많을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작다.

③ 두 재화가 대체재인 경우,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양(+)의 값을 갖는다.

④ 일반적으로 장기 탄력성이 단기 탄력성보다 크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가까운 대체재가 많으면 가격이 오를 때 다른 재화로 쉽게 바꿀 수 있어 수요량이 크게 줄어든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더 크다**.

선지별 해설

탄력성은 한 변수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의 비율이다. 가격탄력성의 크기는 통상 절댓값으로 비교하고, 소득탄력성과 교차탄력성은 부호로 재화의 성격이나 관계를 구별한다.

① O: 정상재는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재화이다. 소득과 수요량의 변화 방향이 같으므로 소득탄력성은 양수이다. 소득이 늘 때 수요량이 감소하는 열등재의 소득탄력성은 음수이다.

② X: 가까운 대체재가 많을수록 소비자는 가격이 오른 재화를 다른 재화로 쉽게 바꿀 수 있다. 같은 가격 상승률에 대해 수요량 감소율이 더 커지므로 가격탄력성의 절댓값은 일반적으로 커진다. 대체재가 적고 전환이 어려울수록 수요는 비탄력적인 경향이 있다.

③ O: 대체재 관계에서는 한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가 다른 재화로 이동하여 그 재화의 수요가 증가한다. 다른 재화 가격의 변화율과 해당 재화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은 부호이므로 교차탄력성은 양수이다. 함께 사용하는 보완재는 일반적으로 음수이다.

④ O: 일반적인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기보다 장기에 더 크다. 장기에는 대체재를 찾고 소비 습관이나 관련 설비를 바꿀 시간이 있어 가격 변화에 더 크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적 경향이며 모든 재화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6.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 생산자에게 상품 단위당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잉여는 증가하고 생산자잉여는 감소한다.
㉡ 소비자잉여는 지불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에서 실제 지불 금액을 뺀 것이다.
㉢ 고정비용이 없는 장기에는 생산자잉여가 기업의 이윤과 동일하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생산자에게 부과한 단위세도 소비자가격 상승과 거래량 감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영향을 준다. 주어진 곡선 조건에서는 **소비자잉여도 감소**하므로 증가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보기별 해설

㉠ X: 생산자에게 단위세를 부과하면 소비자가 내는 가격과 생산자가 세금 납부 후 받는 가격 사이에 세금만큼 차이가 생긴다. 우하향 수요와 우상향 공급에서는 거래량이 줄고 소비자가격은 상승하며 생산자의 순수취가격은 하락한다. 따라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가 모두 감소**한다. 세금의 법적 납부자가 생산자라고 해서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O: 소비자잉여는 소비자가 해당 상품에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에서 실제 지불액을 뺀 편익이다. 여러 단위를 구매하면 각 단위의 잉여를 합하며, 시장 전체에서는 수요곡선 아래와 시장가격 위의 면적으로 나타낸다.

㉢ O: 기업의 생산자잉여는 총수입에서 총변동비용을 뺀 값이고, 이윤은 총수입에서 고정비용을 포함한 총비용을 뺀 값이다. 따라서 $PS = TR - VC = \pi + FC$이다. 보기처럼 **고정비용이 없는 장기**에는 $FC = 0$이므로 생산자잉여와 이윤이 같다.

옳지 않은 보기는 ㉠뿐이므로 ①에 해당한다. ②·③·④에는 옳은 진술인 ㉡ 또는 ㉢이 포함되어 있다.

NoteBase

문 7. 최고가격제(또는 가격 상한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비자는 이전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화를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② 정부가 최고가격을 시장 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하면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③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 암시장(black market)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④ 최고가격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산자는 이윤확보를 위해 품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시장 균형가격보다 낮은 가격상한은 수요량을 늘리고 공급량을 줄여 **초과수요**를 발생시킨다. 초과공급이라고 한 ②가 옳지 않다.

선지별 해설

① (O) 시장 균형가격보다 낮은 상한이 적용되면 **실제로 재화를 배정받아 구입하는 소비자**는 낮은 공식 가격을 지불할 수 있다. 다만 공급 부족으로 일부 소비자는 구하지 못하거나 대기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모든 소비자가 더 유리해진다는 뜻은 아니다.

② (X) 균형가격보다 낮은 최고가격에서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커져 **초과공급이 아니라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가격 하락으로 구입하려는 양은 늘지만 판매하려는 양은 줄기 때문이다. 초과공급은 균형가격보다 높은 최저가격을 설정했을 때의 전형적인 결과이다.

③ (O) 초과수요가 발생하면 공식 시장에서 물건을 구하지 못한 소비자 중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는 사람이 생긴다. 이에 따라 규제 가격을 넘는 **암시장 거래가 나타날 유인**이 커질 수 있다. 실제 발생 여부는 단속과 배급 방식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④ (O) 가격 인상이 제한된 생산자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품질이나 부가서비스를 낮출 유인**을 가질 수 있다. 이는 이윤을 확보하려는 대응 가능성이지, 모든 생산자가 반드시 품질을 떨어뜨린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8.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U = X^{0.5}Y^{0.5}$로 주어진 경우, X재 소비량이 4단위, Y재 소비량이 16단위일 때 Y재로 표시한 X재의 한계대체율은? (단, X와 Y는 각각 X재와 Y재의 소비량이다.)

① 0.5

② 1

③ 4

④ 8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Y재로 표시한 X재의 한계대체율은 **X재 한계효용을 Y재 한계효용으로 나눈 값**이다. 주어진 효용함수에서는 $MRS_{XY} = \frac{Y}{X} = \frac{16}{4} = 4$이다.

계산 과정

Y재로 표시한 X재의 한계대체율은 효용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X재를 조금 더 소비하기 위해 포기할 의사가 있는 Y재의 비율**이다. 양의 값으로 표시하면 $MRS_{XY} = \frac{MU_X}{MU_Y}$이다.

한계효용: 효용함수 $U = X^{0.5}Y^{0.5}$를 각 소비량에 대해 편미분하면 $MU_X = 0.5X^{-0.5}Y^{0.5}$, $MU_Y = 0.5X^{0.5}Y^{-0.5}$이다.

한계대체율 계산: 두 한계효용의 비를 정리하면 $MRS_{XY} = \frac{0.5X^{-0.5}Y^{0.5}}{0.5X^{0.5}Y^{-0.5}} = \frac{Y}{X}$이다. X = 4, Y = 16을 대입하면 $MRS_{XY} = \frac{16}{4} = 4$이다.

따라서 한계대체율은 4로 ③과 일치한다. 해당 소비점에서 Y재 소비량을 세로축으로 놓은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4이며, 한계대체율은 그 절댓값이다. 이는 현재 소비점에서의 한계적 교환비율로, X재를 실제로 1단위 늘리는 큰 변화에서도 정확히 Y재 4단위를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NoteBase

문 9. 다음과 같은 효용함수 $U = \min(X, Y)$를 갖는 선호체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두 재화가 완전보완재일 경우의 선호를 나타낸다.

② 무차별곡선의 한계대체율이 정의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③ 무차별곡선은 L자 형태이다.

④ 무차별곡선에서 한 재화의 가격변화에 대한 효과는 대체효과만 존재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완전보완재는 두 재화를 일정한 비율로 함께 소비하므로 상대가격이 변해도 같은 효용에서 소비 조합을 대체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체효과는 0이고 소득효과만 존재**한다.

선지별 해설

효용함수 $U = \min(X, Y)$에서는 두 수량 중 작은 값이 효용을 결정한다. 통상적인 양의 가격과 소득의 예산제약 아래에서는 한 재화만 남기지 않고 $X = Y$로 소비하는 것이 최적이다.

① O: 두 재화를 한 단위씩 짝지어 소비해야 효용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 $X = 2, Y = 3$에서 효용은 2이며, Y만 더 늘려도 효용은 증가하지 않는다. 두 재화가 1 대 1의 비율로 결합되는 완전보완재 선호이다.

② O: 무차별곡선의 꺾이는 점인 $X = Y$에서는 하나의 접선 기울기가 정해지지 않으므로 통상적인 미분을 이용한 한계대체율이 정의되지 않는다. 수평 부분과 수직 부분의 기울기가 서로 달라 꺾이는 점에서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③ O: 효용수준이 u일 때 $X = u, Y \geq u$인 수직 부분과 $Y = u, X \geq u$인 수평 부분이 (u, u)에서 만난다. 따라서 무차별곡선은 꺾이는 점을 기준으로 위쪽과 오른쪽으로 뻗는 L자 형태이다.

④ X: 가격이 변해도 효용을 일정하게 보상한 상태의 최적 소비는 같은 무차별곡선의 꺾이는 점에 머무르므로 대체효과는 0이다. 명목소득이 일정할 때 가격변화가 일으키는 수요 변화는 실질구매력 변화에 따른 소득효과이다. 실제로 양의 가격 아래에서 최적 수요는 $X = Y = \frac{M}{P_X + P_Y}$이므로 한 재화 가격이 오르면 두 재화의 소비량이 함께 줄어든다.

NoteBase

문 10. 생산함수 $Y = L^{\alpha}K^{\beta}$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Y는 생산량, L은 노동투입량, K는 자본투입량이다.)

① $\alpha + \beta > 1$이면 규모에 대한 수익체감이다.

② $\alpha + \beta < 1$이면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이다.

③ $\alpha + \beta = 1$이면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이다.

④ $\alpha + \beta = 0$이면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두 투입을 같은 비율로 늘리면 산출은 그 배율의 $\alpha + \beta$제곱만큼 변한다. 지수합이 1이면 **투입과 산출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므로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이다.

선지별 해설

노동과 자본을 모두 t배(t > 1) 늘리면 $F(tL, tK) = (tL)^{\alpha}(tK)^{\beta} = t^{\alpha+\beta}Y$가 된다. 산출 증가배율과 투입 증가배율 t를 비교하여 규모에 대한 수익을 판단한다.

① X: $\alpha + \beta > 1$이면 $t^{\alpha+\beta} > t$이므로 산출이 투입보다 더 큰 비율로 증가한다. 따라서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이지 체감이 아니다.

② X: α+β1이면 t^α+β t이므로 산출 증가배율이 투입 증가배율보다 작다. 따라서 **규모에 대한 수익체감**이지 체증이 아니다.

③ O: $\alpha + \beta = 1$이면 $F(tL, tK) = tY$이다. 모든 투입을 두 배로 하면 산출도 두 배가 되는 것처럼, **투입과 산출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므로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이다.

④ X: $\alpha + \beta = 0$이면 $F(tL, tK) = t^0Y = Y$로, 투입을 모두 늘려도 산출은 그대로이다. 이는 투입 증가배율에 못 미치는 규모수익체감의 경우이며, 산출도 t배가 되는 수익불변과 다르다. 또한 규모의 경제는 생산량 증가에 따라 장기평균비용이 하락하는 비용 측면의 개념이므로 지수합 0에서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NoteBase

문 11. 다음 중 총생산량, 평균생산량, 한계생산량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평균생산량이 증가할 때 한계생산량은 계속 증가한다.

② 평균생산량이 극대일 때 한계생산량과 평균생산량은 일치한다.

③ 평균생산량이 감소할 때 한계생산량은 평균생산량보다 크다.

④ 평균생산량과 한계생산량이 일치할 때 총생산량은 극대가 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평균생산량은 한계생산량이 자신보다 크면 상승하고 작으면 하락한다. 따라서 평균생산량이 극대가 되는 지점에서는 **한계생산량과 평균생산량이 일치**한다.

선지별 해설

가변투입량을 L, 총생산량을 TP라 하면 평균생산량은 $AP = \frac{TP}{L}$, 한계생산량은 $MP = \frac{dTP}{dL}$이다. L이 양수이고 생산함수가 미분 가능하면 $\frac{dAP}{dL} = \frac{MP - AP}{L}$이므로 평균생산량의 증감은 한계생산량과 평균생산량의 크기 차이로 결정된다.

① X: 평균생산량이 증가하려면 **한계생산량이 평균생산량보다 크면** 된다. 한계생산량 자체가 계속 증가할 필요는 없다. 한계생산량이 감소하는 중에도 평균생산량보다 큰 동안에는 평균생산량이 상승한다.

② O: 평균생산량이 내부의 극대점에 도달하면 그 기울기가 0이므로 한계생산량과 평균생산량이 일치한다. 통상적인 생산곡선에서는 한계생산량이 평균생산량의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며 만나는 지점에서 평균생산량이 극대가 된다.

③ X: 평균생산량이 감소할 때는 **한계생산량이 평균생산량보다 작다**. 새로 추가되는 투입의 생산량이 기존 평균보다 작아서 전체 평균을 낮추기 때문이다. 한계생산량이 평균생산량보다 크면 평균생산량은 증가한다.

④ X: 한계생산량과 평균생산량의 일치는 평균생산량의 정지점에 관한 조건이다. 총생산량이 내부에서 극대가 되려면 총생산곡선의 기울기인 **한계생산량이 0**이 되고, 통상적으로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어야 한다. 평균생산량과 한계생산량이 양수로 일치하는 때에는 총생산량이 여전히 증가한다.

NoteBase

문 12. 경찰전자에서 사이보그 Z를 개발하여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수요는 $Q = 50 - 0.5P$이다. 한계비용은 20으로 일정하다. 이때 Z의 가격(P)과 판매량(Q)은?

① P: 60, Q: 20

② P: 40, Q: 20

③ P: 20, Q: 40

④ P: 20, Q: 2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독점기업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판매량**을 선택한다. 역수요함수에서 얻은 $MR = 100 - 4Q$를 20과 같게 놓으면 $Q = 20$이고, 수요곡선상의 가격은 $P = 60$이다.

계산 과정

단일가격을 설정하는 독점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판매량을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은 지점에서 정하고, 그 판매량에 대응하는 가격을 수요곡선에서 구한다. 가격을 한계비용에 바로 일치시키는 완전경쟁의 조건과 구별한다.

수요식 $Q = 50 - 0.5P$를 가격에 대해 정리하면 역수요함수는 $P = 100 - 2Q$이다. 총수입은 가격과 판매량의 곱이므로 $TR = PQ = 100Q - 2Q^2$이다.

총수입을 판매량으로 미분하면 한계수입은 $MR = 100 - 4Q$이다. 한계비용 $MC = 20$과 같게 놓으면 $100 - 4Q = 20$이므로 판매량은 $Q = 20$이다. 한계수입은 수량이 늘수록 감소하고 한계비용은 일정하므로 이 지점이 이윤극대화 수량이다.

판매량 20을 역수요함수에 대입하면 $P = 100 - 2 \times 20 = 60$이다. 따라서 가격 60, 판매량 20으로 ①에 해당한다. 한계수입 20은 가격이 아니라 마지막 판매량 증가에 따른 총수입 증가분이다.

NoteBase

문 13. 독점적 경쟁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장기 균형에서 기업의 이윤은 0이 되므로 균형가격은 한계비용과 같게 된다.
㉡ 기업은 장기 균형상태에서 양(+)의 이윤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 장기적으로 기업의 균형 생산량은 평균비용이 극소화되는 생산량보다 작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장기균형에서 경제적 이윤이 0이라는 것은 **가격이 평균비용과 같다는 뜻이지 한계비용과 같다는 뜻이 아니다.** 양의 경제적 이윤도 유지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답은 ③이다.

보기별 해설

㉠ (X) 자유로운 진입·퇴출이 가능한 독점적 경쟁시장의 장기균형에서는 경제적 이윤이 0이므로 **가격은 평균비용과 같아진다.** 이윤극대화 조건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의 일치이다. 개별 기업의 수요곡선이 우하향하여 가격이 한계수입보다 높으므로 $P = AC$, $MR = MC$, P MC가 성립한다.

㉡ (X) 단기에는 양의 경제적 이윤을 얻을 수 있지만, 이윤이 있으면 신규 기업이 진입하여 기존 기업의 수요를 줄인다. 따라서 표준적인 장기균형에서는 **양의 경제적 이윤이 아니라 정상 이윤만**을 얻는다. 정상 이윤은 기회비용에 포함되므로 경제적 이윤이 0이라고 해서 회계상 이익까지 반드시 0이라는 뜻은 아니다.

㉢ (O) 장기균형에서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은 평균비용곡선의 하락 구간에 접한다. 따라서 균형 생산량은 **평균비용을 최소화하는 생산량보다 작다.** 이를 초과설비 또는 유휴설비의 존재라고 설명한다.

문제는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르는 것이므로 ㉠과 ㉡을 묶은 ③이 정답이다.

NoteBase

문 14. 러너(A. P. Lerner)의 독점도(degree of monopol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격과 한계비용의 차이가 클수록 사회적인 후생손실이 증가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독점에 따른 비효율성을 측정하는 데 활용된다.

② 가격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면 독점도는 0이고, 한계비용이 0이면 독점도는 1이 된다.

③ 가격이 100만 원, 한계비용이 50만 원일 경우 독점도는 0.5이다.

④ 독점도는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비례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에서 러너 지수는 $L = \frac{P - MC}{P} = \frac{1}{|\varepsilon|}$이다. 따라서 독점도는 수요의 가격탄력성 절댓값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반비례**한다.

선지별 해설

러너의 독점도는 가격이 한계비용을 초과하는 정도를 가격 대비 비율로 나타낸 $L = \frac{P - MC}{P}$이다. 여기서 P는 양의 가격, MC는 한계비용이다.

① O: 가격은 소비자가 추가 한 단위에 부여하는 가치를, 한계비용은 그 단위를 생산하는 추가 비용을 나타낸다. 독점으로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한계비용을 초과**하면 추가 생산으로 얻을 수 있었던 사회적 순편익이 실현되지 않는다. 러너 지수는 이 괴리를 이용한 시장지배력과 배분 비효율성의 지표이다. 다만 지수 자체가 후생손실의 금액은 아니며, 후생손실의 크기는 수요·비용 구조와 생산량 감소에도 좌우된다.

② O: P = MC이면 $L = \frac{P - P}{P} = 0$이다. MC = 0이고 P가 양수이면 $L = \frac{P - 0}{P} = 1$이다. 한계비용 대비가 아니라 **가격 대비 초과분**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③ O: 가격과 한계비용의 단위를 만 원으로 통일하여 대입하면 $L = \frac{100 - 50}{100} = 0.5$이다. 가격의 50%가 한계비용을 초과한다는 뜻이다.

④ X: 단일가격을 정하는 독점기업의 내부 이윤극대화점에서는 $MR = P\left(1 - \frac{1}{|\varepsilon|}\right) = MC$가 성립한다. 이를 정리하면 $L = \frac{P - MC}{P} = \frac{1}{|\varepsilon|}$이므로 독점도는 **수요의 가격탄력성 절댓값에 반비례**한다.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가격을 올릴 때 판매량이 크게 줄어 높은 마진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독점도가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비례한다고 한 ④가 옳지 않다.

NoteBase

문 15. 수요독점 노동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면 고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

② 상품독점시장에서의 노동수요는 항상 수요독점이다.

③ 균형에서 노동의 공급곡선과 한계생산가치가 일치한다.

④ 완전경쟁적인 노동시장보다 균형임금이 높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수요독점에서는 추가 고용을 위한 임금 인상이 기존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어 한계요소비용이 높아진다.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은 이 비용 구조를 바꾸어 고용을 늘릴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우상향하는 노동공급곡선에 직면한 단일임금 수요독점기업은 노동자를 더 고용할 때 기존 노동자의 임금도 올려야 하므로 한계요소비용이 임금보다 높다. 적절한 수준의 최저임금은 일정 고용 범위에서 이 한계요소비용을 낮추어 **임금과 고용을 함께 늘릴 수 있다**.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으면 고용이 줄 수 있으므로 모든 수준에서 증가한다는 뜻은 아니다.

② X: 상품시장의 독점은 상품 판매자가 하나인 것이고, 노동시장의 수요독점은 해당 노동을 고용하는 구매자가 하나인 것이다. 독점기업이라도 여러 기업이 경쟁하는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으므로 **상품 독점이 노동 수요독점을 뜻하지는 않는다**.

③ X: 수요독점기업은 노동의 **한계요소비용과 한계수입생산이 같아지는** 고용량을 선택하고, 그 고용량에 대응하는 노동공급곡선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상품시장이 경쟁적이면 한계수입생산이 한계생산가치와 같지만, 그 경우에도 수요독점의 임금은 일반적으로 한계생산가치보다 낮다. 공급곡선과 한계생산가치의 교점이 수요독점 균형은 아니다.

④ X: 노동공급과 생산성이 같은 조건에서 통상적인 수요독점 균형은 완전경쟁 노동시장보다 고용량과 임금이 낮다. 수요독점기업은 고용을 제한하여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구매력을 행사한다.

NoteBase

문 16. 내쉬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월전략균형은 내쉬균형에 포함된다.

② 모든 내쉬균형은 항상 안정적이다.

③ 내쉬균형이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보장하지 않는다.

④ 순수 내쉬균형은 항상 존재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내쉬균형은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졌을 때 각자가 최선의 대응을 선택한 상태이다. 가위바위보처럼 **순수전략 내쉬균형이 없는 게임**도 있으며, 유한게임의 균형 존재는 혼합전략까지 허용해야 보장된다.

선지별 해설

순수전략은 하나의 행동을 확정하여 선택하는 것이고, 혼합전략은 여러 행동을 일정한 확률로 선택하는 것이다. 내쉬균형에서는 상대방 전략을 그대로 두고 자신만 전략을 바꾸어 더 높은 보수를 얻을 수 없다.

① O: 우월전략은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더라도 자신에게 최선인 전략이다. 각자가 우월전략을 선택한 균형에서는 실제 상대방의 선택에 대해서도 서로 최선의 대응이므로 내쉬균형의 조건을 충족한다. 반대로 내쉬균형이라고 해서 모든 상대 전략에 대해 최선인 우월전략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② O: 여기서 안정성은 상대방의 전략이 고정되어 있을 때 어느 참여자도 단독으로 전략을 바꾸어 보수를 높일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일방적 이탈 유인이 없다는 점은 모든 내쉬균형의 정의에 들어 있다. 외부 충격 이후 다시 그 균형으로 수렴하는 동학적 안정성이나 여러 참여자의 공동 이탈까지 막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③ O: 내쉬균형은 개인의 일방적 전략 변경 유인에 관한 조건이지 사회 전체의 효율성 조건이 아니다. 죄수의 딜레마에서 각자의 비협조가 내쉬균형이더라도 두 사람이 함께 협조하면 모두 더 나아질 수 있으므로, 내쉬균형은 파레토 효율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④ X: 순수전략 내쉬균형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가위바위보에서는 어떤 확정된 선택 조합에서도 적어도 한쪽이 선택을 바꾸어 보수를 높일 수 있다. 참여자와 순수전략 수가 유한한 게임은 혼합전략까지 허용하면 적어도 하나의 내쉬균형이 존재한다.

NoteBase

문 17. 십분위분배율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최하위 20% 계층 소득점유율/최상위 20% 계층 소득점유율

② 최상위 20% 계층 소득점유율/최하위 20% 계층 소득점유율

③ 최상위 40% 계층 소득점유율/최하위 20% 계층 소득점유율

④ 최하위 40% 계층 소득점유율/최상위 20% 계층 소득점유율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십분위분배율은 **최하위 40% 계층의 소득점유율**을 **최상위 20% 계층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하위 집단의 비중을 분자에 둔다는 점이 소득 5분위배율과 다르다.

개념 구분

십분위분배율은 소득이 낮은 순서로 전체를 10개의 같은 규모 집단으로 나누고, **하위 4개 집단의 소득점유율을 상위 2개 집단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분자는 최하위 40%, 분모는 최상위 20% 계층의 소득점유율이다.

계산식은 D=최하위 40\% 계층 소득점유율최상위 20\% 계층 소득점유율이다. 두 소득점유율은 같은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 계층의 총소득끼리 비교해도 같은 비율을 얻는다. 계층별 1인당 평균소득을 나누는 식과는 다르다.

①은 분자를 하위 20%로 잡아 비교 대상이 다르다. ②처럼 상위 20%를 하위 20%로 나누는 것은 소득 5분위배율이며, 십분위분배율과 분자·분모의 방향도 다르다. ③의 상위 40%와 하위 20% 조합 역시 십분위분배율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하위 40% 계층 소득점유율을 최상위 20% 계층 소득점유율로 나눈 ④가 옳다.

NoteBase

문 18. 갑은 1/3의 확률로 각각 1, 3, 10이라는 소득 M을 제공하는 복권을 구입했다. 갑의 효용이 $U = M^2$일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갑은 위험회피적이다.

② 갑은 위험중립적이다.

③ 갑은 위험선호적이다.

④ 갑은 소득의 증가에 따라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U(M) = M^2$의 이계도함수는 U''(M)=20으로, 주어진 소득 범위에서 효용함수가 볼록하다. 따라서 갑은 **위험선호적**이며 정답은 ③이다.

핵심 풀이

효용함수의 곡률로 판단하면 $U'(M) = 2M$, U''(M)=20이다. 주어진 양의 소득 범위에서 효용함수는 증가하면서 볼록하므로 갑은 **위험선호적**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기대효용으로 확인하면 복권의 기대소득은 $E[M] = (1 + 3 + 10)/3 = 14/3$이고, 복권의 기대효용은 $E[U] = (1^2 + 3^2 + 10^2)/3 = 110/3 = 330/9$이다. 기대소득을 확실하게 받을 때의 효용은 $U(E[M]) = (14/3)^2 = 196/9$이다. 복권의 기대효용이 더 크므로 같은 기대소득을 확실히 받는 것보다 위험한 복권을 선호한다.

위험회피는 증가하는 오목 효용함수, 위험중립은 선형 효용함수에 해당한다. 이 문제에서는 이계도함수가 항상 양수이므로 해당 소득 범위에서 위험회피나 위험중립으로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 **복권을 구입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효용함수의 볼록성**이 판단 근거이다.

NoteBase

문 19. 갑은 저축 2,000만 원과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00만 원으로 인쇄기를 구매하여 인쇄소를 창업하였다. 대출이자율과 예금이자율은 각각 연 5%인 경우, 이 사업에 연간 소요되는 자본비용은?

① 50만 원

② 150만 원

③ 1,000만 원

④ 2,000만 원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자본비용에는 대출이자뿐 아니라 **자기 저축에서 포기한 예금이자**도 포함한다. 연간 대출이자 50만 원과 포기한 예금이자 100만 원을 합하면 150만 원이다.

계산 과정

자본비용의 범위: 경제학적 자본비용에는 실제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뿐 아니라 **자기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수익**도 포함된다. 인쇄기 구입에 투입한 원금 3,000만 원 자체와 그 자본을 1년 동안 사용하는 비용을 구분한다.

차입자본 비용: 은행에서 빌린 1,000만 원에는 연 5%의 이자를 지급한다. 연간 명시적 비용은 $1{,}000 \times \frac{5}{100} = 50$만 원이다.

자기자본 비용: 자기 저축 2,000만 원을 사업에 투입하지 않고 예금했다면 연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다. 포기한 예금이자 $2{,}000 \times \frac{5}{100} = 100$만 원은 현금 지급이 없더라도 사업의 암묵적 기회비용이다.

연간 자본비용은 차입금 이자 50만 원과 자기자금의 기회비용 100만 원을 더한 150만 원이다. 따라서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20. 역선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동일한 개념이다.

② 정보가 대칭적이라도 역선택은 발생한다.

③ 역선택이 없으면 시장은 항상 파레토 효율적이다.

④ 자격증은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역선택은 상대의 품질·능력 같은 숨은 특성을 알기 어려워 생긴다. **신뢰할 만한 자격증은 능력을 보여 주는 정보**를 제공하여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역선택은 거래 상대가 알기 어려운 품질·능력·위험도 등 **숨은 특성** 때문에 거래 대상의 구성이 불리하게 바뀌는 문제이다. 도덕적 해이는 계약 뒤 상대가 관찰하기 어려운 행동이나 노력 수준이 달라지는 **숨은 행동**의 문제로,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② X: 역선택은 거래 당사자가 관련 특성에 대해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진다는 비대칭성이 핵심이다. 양쪽이 같은 정보를 가지고 함께 불확실성에 직면한 것만으로는 역선택이라고 하지 않는다.

③ X: 역선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시장실패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외부효과, 공공재, 독점력 등 다른 요인이 남아 있으면 자원배분이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

④ O: 자격증은 개인이 일정한 능력이나 훈련 기준을 충족했음을 상대방에게 보여 주는 **신호 또는 검증 자료**가 될 수 있다. 채용자나 소비자가 능력을 구별하기 쉬워지면 정보 비대칭과 역선택이 완화된다. 다만 자격증이 실제 능력을 믿을 만하게 반영해야 하며, 모든 역선택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21. GDP의 개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GDP는 통상 1년 동안 생산된 생산물의 시장가치를 의미하는 저량개념이다.

②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산한 것은 포함되고, 내국인이 외국에서 생산한 것은 제외된다.

③ 주부의 가사노동은 시장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므로 GDP에 산정되지 않는다.

④ 당해연도의 생산과 관련 없는 것은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GDP는 1년이나 한 분기처럼 일정 기간 국내에서 생산한 최종 재화·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는 **유량 개념**이다.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규모를 뜻하는 저량과 구별한다.

선지별 해설

GDP는 일정 기간 한 나라의 경제영역 안에서 새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합한 지표이다. 생산자의 국적보다는 생산이 이루어진 경제영역을 기준으로 하며, 중간재 가치를 최종재에 중복하여 더하지 않는다.

① X: GDP는 일정 기간 발생한 생산을 측정하므로 저량이 아니라 유량이다. '1년 동안'이라는 기간 표시가 핵심이다. 자본스톡이나 특정 시점의 부채잔액은 저량이고, 연간 생산·소득·투자는 유량에 해당한다.

② O: 외국인이 국내 경제영역에서 생산한 부가가치는 국내 GDP에 포함된다. 반대로 내국인이 외국 경제영역에서 생산한 부가가치는 그 외국의 GDP에 포함되며 국내 GDP에서는 제외된다. 이는 국적별 생산 합계가 아니라 국내 생산을 측정하기 때문이다.

③ O: 가구 구성원이 자기 가구를 위해 무급으로 수행하는 청소·요리 등 가사서비스는 통상 GDP의 생산범위에서 제외된다. 같은 서비스를 유급 가사도우미 등으로부터 구매하면 포함된다. 다만 모든 비시장생산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 서비스나 자가주택의 주거서비스처럼 별도로 측정하여 포함하는 항목도 있다.

④ O: 당기에 새로 이루어진 생산과 무관한 단순 자산 이전은 당기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과거에 생산된 중고품 자체의 거래가액이나 이전지출은 제외한다. 중고품 거래 과정에서 당기에 제공된 중개서비스 수수료는 새 서비스 생산이므로 포함한다.

NoteBase

문 22. 다음은 X재만을 생산하는 갑국의 X재 생산량과 가격을 나타낸 것이다.
2023년도를 기준연도로 할 경우, 2024년의 실질 GDP와 GDP디플레이터는?

	2023년	2024년
생산량(개)	10	8
가격(달러)	100	150

① 실질 GDP: 800, GDP디플레이터: 180

② 실질 GDP: 800, GDP디플레이터: 150

③ 실질 GDP: 1,000, GDP디플레이터: 130

④ 실질 GDP: 1,000, GDP디플레이터: 1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2024년 생산량 8개를 **2023년 가격 100달러**로 평가한 실질 GDP는 800달러이다. 명목 GDP는 1,200달러이므로 GDP디플레이터는 $\frac{1,200}{800} \times 100 = 150$이다.

계산 과정

실질 GDP는 해당 연도의 생산량을 **기준연도 가격**으로 평가하고, 명목 GDP는 해당 연도의 생산량을 **그해 가격**으로 평가한다. 이 문제의 기준연도는 2023년이다.

2024년 실질 GDP: 표에서 2024년 생산량은 8개이고, 기준연도인 2023년 가격은 개당 100달러이다. 따라서 실질 GDP는 8 × 100 = 800달러이다. 2023년 생산량 10개를 다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할 연도인 2024년 생산량을 사용한다.

2024년 명목 GDP: 2024년 생산량 8개에 2024년 가격 150달러를 곱하면 8 × 150 = 1,200달러이다. 실질 GDP와의 차이는 적용한 가격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GDP디플레이터: 기준연도를 100으로 하는 물가지수이므로 aligned&GDP디플레이터=명목 GDP실질 GDP×100&=1,200800×100=150aligned 이다. 150은 달러 금액이 아니라 지수이며, 기준연도보다 물가가 50% 높은 수준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2024년 실질 GDP는 800달러, GDP디플레이터는 150으로 ②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23. 다음 중 소비함수의 기울기인 한계소비성향(MPC)의 값으로 옳은 것은?

① $MPC < 0$

② $MPC = 0$

③ $0 < MPC < 1$

④ $MPC = 1$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표준적인 케인스 소비함수에서는 소득 증가분의 일부를 소비하고 나머지를 저축한다. 따라서 **0 MPC1**이며 정답은 ③이다.

핵심 풀이

이 문제에서 전제하는 표준적인 케인스 소비함수에서는 소득이 늘면 소비도 늘지만, 소비 증가액은 소득 증가액보다 작다고 본다. 따라서 **0 MPC1**이며 정답은 ③이다.

한계소비성향은 가처분소득 증가분 중 소비 증가분의 비율로, $MPC = \Delta C/\Delta Y_d$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0만 원 증가할 때 소비가 80만 원 증가하면 $MPC = 80/100 = 0.8$이고, 나머지 20만 원은 저축 증가분이 된다.

선형 소비함수 $C = a + bY_d$에서 기울기 b가 한계소비성향이다. 음수이면 소득 증가 때 소비가 줄고, 0이면 소비가 늘지 않으며, 1이면 증가한 소득 전부를 소비하므로 표준 가정과 맞지 않는다. 이 범위는 해당 소비모형의 가정이며, 모든 상황에서 정의만으로 반드시 성립하는 수학적 제약은 아니다.

NoteBase

문 24. 케인즈의 소비함수에서 소득이 증가하면 평균소비성향(APC)과 한계소비성향(MPC)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① 평균소비성향은 증가하고 한계소비성향은 불변이다.

② 평균소비성향은 감소하고 한계소비성향은 불변이다.

③ 평균소비성향은 불변이고 한계소비성향은 증가한다.

④ 평균소비성향은 불변이고 한계소비성향은 감소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표준적인 선형 소비함수에서는 소득이 늘수록 기초소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져 **평균소비성향은 감소**한다. 한계소비성향은 소비함수의 일정한 기울기이므로 변하지 않는다.

개념 구분

이 문항은 케인즈의 소비이론을 통상적인 선형 소비함수 $C = a + bY$로 나타낸 경우를 묻는다. 여기서 a0은 소득과 무관한 기초소비, 0 b1은 일정한 한계소비성향이며, Y0은 소득이다.

평균소비성향은 소득 중 소비에 쓰는 비율로 $APC = \frac{C}{Y} = \frac{a}{Y} + b$이다. 소득이 증가하면 일정한 기초소비 a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져 APC는 감소한다. 소비액 자체는 증가하더라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질 수 있다.

한계소비성향은 소득이 한 단위 늘 때 소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나타내며, 선형 소비함수에서는 $MPC = \frac{dC}{dY} = b$이다. 함수의 기울기가 일정하므로 소득이 증가해도 MPC는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평균소비성향은 감소하고 한계소비성향은 불변인 ②에 해당한다. APC와 MPC는 모두 소비성향이지만, 전자는 소득 대비 소비의 평균 비율이고 후자는 추가 소득에 대한 소비의 증가분을 나타낸다.

NoteBase

문 25. 통화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① 중앙은행의 본원통화

② 중앙은행의 재할인율

③ 민간의 현금예금비율

④ 예금은행의 초과지급준비율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기본 통화승수 모형에서는 **본원통화가 통화창출의 기초**이고, 통화량은 본원통화에 통화승수를 곱한 값이다. 승수가 일정할 때 본원통화의 변화가 통화량에 직접 연결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선지별 해설

기본 통화승수 모형에서 통화량 M은 $M = mH$로 표현된다. H는 본원통화이고 m은 통화승수이다. 통화를 민간보유현금과 예금의 합으로 두면, 현금예금비율 c, 법정지급준비율 r, 초과지급준비율 e에 대해 $m = \frac{1+c}{c+r+e}$로 나타낼 수 있다.

① 중앙은행의 본원통화: 민간보유현금과 은행 지급준비금으로 구성되며 **통화창출의 기초**가 된다. 승수가 일정하면 본원통화 증가는 승수만큼 통화량 증가로 연결되므로, 기본 모형에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에 영향을 주는 핵심 공급 변수이다.

② 중앙은행의 재할인율: 은행이 중앙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에 영향을 준다. 그 결과 은행의 차입·대출 행동과 본원통화 공급 등이 달라질 수 있지만, 통화량을 직접 구성하는 수량이 아니라 간접적인 정책 경로이다.

③ 민간의 현금예금비율: 민간이 예금보다 현금을 얼마나 선호하는지를 나타내며 통화승수에 영향을 준다. 통상적으로 총지급준비율이 1보다 작은 경우 현금예금비율이 높아지면 예금통화 창출이 줄어 승수가 낮아진다.

④ 예금은행의 초과지급준비율: 은행이 법정 필요액을 넘어 준비금을 얼마나 보유하는지를 나타낸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이 비율이 높아지면 승수가 낮아져 같은 본원통화로 창출되는 통화량이 줄어든다.

다만 변화 폭과 승수의 반응이 주어지지 않아 모든 상황에서의 수치적 영향 크기를 순위로 확정할 수는 없다. 이 문항은 기본 통화승수 모형에서 가장 기초적인 공급 변수를 묻는 취지로, ①의 본원통화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26. 시점 간 구매력을 이전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화폐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① 교환의 매개수단

② 가치의 척도

③ 회계의 단위

④ 가치의 저장수단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화폐를 보유했다가 미래에 지출하면 현재의 구매력을 나중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 간 이전은 화폐의 **가치 저장 기능**이다.

개념 구분

가치의 저장수단: 화폐를 지금 지출하지 않고 보유했다가 미래에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현재의 구매력을 미래로 옮기는 기능**이 가치의 저장이다. 다만 물가가 상승하면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양이 줄어들므로 실질구매력이 항상 그대로 보존된다는 뜻은 아니다.

교환의 매개수단: 재화를 팔아 화폐를 받은 뒤 그 화폐로 다른 재화를 살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물물교환에서 필요한 거래 상대방 간 욕구의 일치를 피하게 해 주며, 핵심은 시간 간 이전보다 거래를 매개한다는 점이다.

가치의 척도와 회계의 단위: 여러 재화의 가치를 화폐가격이라는 공통 기준으로 표시·비교하고, 자산·부채·수입·지출을 같은 단위로 계산·기록하는 기능이다. 가치의 척도는 가치의 측정·비교를, 회계의 단위는 그 금액의 계산·기록을 강조하며, 둘 다 구매력을 미래로 이전하는 저장 기능과 구별된다.

발문의 '시점 간 구매력 이전'은 가치의 저장수단을 뜻하므로 ④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27. IS-LM모형에서 LM곡선의 기울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① 통화량의 변화

② 정부지출의 변화

③ 투자의 변화

④ 화폐유통속도의 변화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LM곡선의 기울기는 **소득과 이자율에 대한 화폐수요의 반응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화폐유통속도의 변화로 소득 한 단위당 필요한 거래용 화폐보유가 달라지면 이 기울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선지별 해설

통상적인 선형 IS-LM모형에서 실질화폐수요를 $L = kY - hi$로 놓으면 화폐시장 균형은 $\frac{M}{P} = kY - hi$이다. 이를 정리한 $i = \frac{k}{h}Y - \frac{M}{Ph}$에서, 소득 Y를 가로축·이자율 i를 세로축으로 놓은 LM곡선의 기울기는 $\frac{k}{h}$이다. k는 소득에 대한, h는 이자율에 대한 화폐수요의 반응 정도이며 둘 다 양수이다.

① X: 다른 조건이 같을 때 통화량 M의 변화는 실질화폐공급을 바꾸어 **LM곡선의 위치**를 이동시킨다. 위 선형 모형에서는 절편이 바뀌는 것이며 기울기 자체를 결정하는 k와 h는 바뀌지 않는다.

② X: 정부지출은 재화시장 총수요의 구성 요소이므로 정부지출 변화는 주로 **IS곡선을 이동**시킨다. 그 결과 균형점이 기존 LM곡선 위에서 이동할 수는 있지만 LM곡선의 기울기 변화와는 다르다.

③ X: 투자는 재화시장 수요에 속한다. 독립적인 투자지출 변화는 IS곡선의 위치에, 투자의 이자율 민감도 변화는 IS곡선의 기울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화폐시장 균형곡선인 LM의 기울기**를 직접 결정하는 요인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④ O: 이 문항에서 화폐유통속도 변화는 거래를 위해 소득 한 단위당 보유하려는 화폐량이 달라지는 것을 뜻한다. 화폐가 더 빠르게 유통되어 필요한 거래용 화폐보유가 줄면 **소득에 대한 화폐수요의 반응 정도 k**가 작아질 수 있고, h가 같다면 LM곡선의 기울기도 작아진다. 단순히 소득·이자율이 변해 관측된 유통속도가 달라지는 현상과 화폐수요 행태 자체의 변화를 구별해야 한다.

따라서 화폐수요의 소득 반응 정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④가 적합하다.

NoteBase

문 28. 예금의 전액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하는 「전액지급준비제도(full reserve banking)」하에서 본원적 예금이 10만 원이면 통화량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① 감소한다.

② 증가한다.

③ 불변이다.

④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기존 현금 10만 원을 예금하면 민간 보유 현금은 10만 원 줄고 예금은 10만 원 늘어난다. 전액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여 **추가 예금이 창출되지 않으므로 통화량은 불변**이다.

핵심 풀이

전액지급준비제도에서는 은행이 받은 예금의 100%를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한다. 예금을 바탕으로 추가 대출을 할 여유가 없으므로, 대출과 재예금의 반복을 통한 파생예금 창출이 일어나지 않는다.

본원적 예금은 민간이 보유하던 현금을 은행에 맡겨 생긴 최초의 예금으로 이해한다. 10만 원을 맡기면 민간 보유 현금은 10만 원 줄고 예금은 10만 원 늘어난다. 은행이 보유하는 그 현금은 지급준비금이며, 민간 보유 현금과 중복하여 통화량에 더하지 않는다.

통화량을 민간 보유 현금과 통화성 예금의 합으로 보면 그 변화는 −10만 원 + 10만 원 = 0이다. 지급준비율이 1인 단순 예금창출 모형의 예금승수도 $\frac{1}{1} = 1$이므로 최초 예금 외의 추가 예금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현금이 예금으로 형태만 바뀌고 통화량은 불변이므로 ③에 해당한다. 이는 중앙은행이 새 본원통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달리, 주어진 현금의 예금 전환에 따른 통화량 변화를 설명한 것이다.

NoteBase

문 29. 총수요-총공급 모형의 단기 균형 분석에서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총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① 통화공급의 증가

② 정부지출의 증가

③ 조세의 감면

④ 물가수준의 상승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통화공급 증가·정부지출 증가·감세는 총수요를 확대한다. 반면 **물가수준 상승 자체는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니므로** 정답은 ④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통화공급 증가는 주어진 물가에서 실질통화량을 늘리고, 통상 이자율 하락을 통해 투자 등 지출을 촉진한다. 따라서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우상향하는 단기 총공급곡선 아래에서 균형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② (O) 정부지출 증가는 총수요를 직접 늘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이다. 다른 조건이 같으면 **총수요 증가로 단기 균형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③ (O) 조세 감면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표준적인 단기 모형에서는 **균형 국민소득을 높이는 요인**이다.

④ (X) 물가수준 상승 자체는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옮기는 외생적 지출 증가 요인이 아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면 **기존 우하향 총수요곡선을 따라 실질 총수요량이 감소**한다. 다만 총수요 확대의 결과로 물가와 균형 국민소득이 함께 오를 수 있으므로, 물가 상승과 국민소득 증가가 언제나 양립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30.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한다.

② 총공급의 감소가 주요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의미한다.

③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경우 총수요관리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하면 경기가 더욱 침체된다.

④ 케인즈학파에 따르면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화폐적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은 생산비 상승 등 **공급 측 충격**으로 설명된다. 인플레이션이 언제나 화폐적 현상이라는 주장을 케인즈학파의 비용인상 설명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생산비 상승으로 단기 총공급이 감소하면 물가수준은 오르고 실질산출은 줄어든다. 따라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에서는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함께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② O: 원자재 가격이나 단위노동비용 상승 등은 같은 가격에서 공급하려는 생산량을 줄여 단기 총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이처럼 수요 확대가 아니라 **공급 측 비용 압력**에서 시작하는 물가상승을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라 한다.

③ O: 정부가 긴축적인 재정·통화정책으로 총수요를 줄이면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할 수 있지만 산출과 고용은 더 감소한다. 따라서 불리한 공급충격 뒤의 수요긴축은 물가안정과 경기회복 사이의 상충관계를 만든다.

④ X: 인플레이션을 언제나 화폐적 현상으로 보는 주장은 통화주의와 연결된다. 케인즈학파는 원자재·임금 등의 비용 상승과 공급충격에 의한 물가상승도 설명하므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을 언제나 화폐적 현상이라고 주장한다는 귀속은 잘못이다. 다만 일회성 공급충격에 따른 가격수준 상승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지는 기대와 후속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진다.

NoteBase

문 31.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 상충관계(trade-off)가 존재함을 나타내는 곡선으로 옳은 것은?

① 래퍼곡선

② 계약곡선

③ 오퍼곡선

④ 필립스곡선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 상충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필립스곡선**이다. 기대인플레이션과 공급 여건이 일정한 단기에는 실업률 하락과 인플레이션율 상승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

개념 구분

필립스곡선은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기대인플레이션과 공급 여건이 일정한 단기에는 총수요가 확대되어 고용이 늘고 실업률이 낮아질수록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어 두 변수 사이의 상충관계를 설명한다.

이 상충관계가 영구적으로 고정된 것은 아니다. 기대인플레이션이나 공급 여건이 변하면 단기 필립스곡선이 이동하며, 자연실업률 가설에서 장기 필립스곡선은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이다. 따라서 **단기의 상충관계와 장기의 관계**를 구별해야 한다.

래퍼곡선은 세율과 조세수입의 관계를 나타낸다. 세율 인상이 과세대상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세율을 높인다고 세수가 언제나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의를 담는다.

계약곡선은 에지워스 상자에서 상호 이익을 주는 교환의 여지가 더 이상 없는 파레토 효율적 배분들을 연결한 곡선이다. 일반적인 내부해에서는 두 소비자의 한계대체율이 같아지는 점들로 설명한다.

국제무역의 오퍼곡선은 교역조건에 따라 한 나라가 수입하려는 양과 그 대가로 수출하려는 양의 조합을 나타낸다.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은 아니다.

따라서 발문에서 묻는 곡선은 ④ 필립스곡선이다.

NoteBase

문 32. 오쿤의 법칙(Okun’s law)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업률과 임금상승률 간의 관계를 설명한다.

②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설명한다.

③ GDP갭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설명한다.

④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 간의 관계를 설명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오쿤의 법칙은 **생산의 잠재수준 대비 격차와 실업률**의 관계를 설명한다. 실제 생산이 잠재GDP보다 낮아질수록 실업률은 자연실업률보다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개념 구분

오쿤의 법칙은 실질 생산과 실업 사이의 경험적 관계이다. 경기가 나빠져 생산이 잠재수준에 못 미치면 기업의 노동수요가 줄고 실업률이 자연실업률을 웃도는 경향이 있다.

GDP갭을 $g = \frac{Y - Y^*}{Y^*} \times 100$으로 정의하면, 대표적인 갭 형태는 $g = -\beta(u - u^*)$, β0로 나타낸다. 여기서 Y는 실제 실질GDP, Y*는 잠재GDP, u는 실제 실업률, u*는 자연실업률이다. 실업률을 퍼센트 단위로 표시하면 그 차이는 퍼센트포인트이다. 이 정의에서는 GDP갭과 실업률갭의 관계가 음(-)이며, GDP갭을 잠재GDP 대비 생산 부족분으로 정의하면 부호는 반대가 된다.

실업률과 임금상승률의 관계는 원래의 필립스곡선과 연결되므로 ①은 다른 개념이다. ②의 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 ④의 임금상승률·물가상승률도 오쿤의 법칙이 직접 다루는 두 변수의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GDP갭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설명한다는 ③이 해당한다. 오쿤의 법칙은 경험적으로 관찰되는 경향으로, 반응계수가 모든 나라와 시기에 동일한 항등식은 아니다.

NoteBase

문 33. 다음 내용에 대한 성장모형은 무엇인가?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천인 기술진보는 연구 및 개발에 대한 투자, 교육투자 및 인적자본 확대, 정부의 성장전략 등에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하며, 따라서 장기적인 경제성장에서 정부의 역할이 크게 강조된다.

① 해로드-도마 성장모형
② 내생적 성장모형
③ 솔로우 성장모형
④ 외생적 성장모형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기술진보를 외부에서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연구·개발과 인적자본 투자로 만들어지는 결과**로 설명하는 것은 내생적 성장모형이다. 이러한 투자를 촉진하는 정부 정책도 장기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대응 관계 해설

기술진보와 연구·개발 투자: 내생적 성장모형은 장기성장의 원천을 경제 밖에서 주어지는 것으로만 취급하지 않고, 기업과 개인의 투자·학습 등 **경제 내부의 선택과 활동**으로 설명한다. 연구·개발 투자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만들어 생산성을 높인다는 지문의 설명이 여기에 대응한다.

교육투자와 인적자본 확대: 교육과 훈련은 노동자의 지식·숙련을 축적하여 생산성을 높인다. 내생적 성장모형은 인적자본 축적이나 지식의 파급효과를 통해 장기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경로를 설명하므로, 교육투자를 성장의 원천으로 보는 설명과 연결된다.

정부의 성장전략: 연구·개발과 교육에는 사회 전체로 퍼지는 편익이 있어 민간투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교육투자 등은 지식·인적자본 축적을 촉진하여 장기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모든 정부 지출이 언제나 성장률을 높인다는 뜻은 아니다.

다른 모형과의 대응: 기본 솔로우 모형은 장기적인 1인당 성장의 원천인 기술진보를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취급하므로 지문의 핵심과 다르다. 해로드-도마 모형은 저축·투자와 자본계수의 관계를 중심으로 성장을 설명한다. 기술진보 자체를 연구·개발 및 인적자본 투자와 연결한 지문은 내생적 성장모형에 대응하므로 ②이다.

NoteBase

문 34. 케인즈의 유동성선호설(liquidity preference hypothesis)에 의하면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① 대부자금의 수요와 공급

② 화폐의 수요와 공급

③ 외환의 수요와 공급

④ 생산물의 수요와 공급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유동성선호설은 이자율을 유동성을 포기하는 대가로 보고,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정답은 ②이다.

핵심 풀이

케인즈의 유동성선호설에서 이자율은 **화폐수요와 화폐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사람들은 거래·예비·투기 등의 목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화폐를 보유하려 한다. 화폐를 보유하면 이자를 주는 자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하므로, 이자율은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이자율이 높아지면 화폐 보유 유인이 줄고, 낮아지면 커진다.

실질화폐공급을 M/P, 실질화폐수요를 $L(Y, i)$라고 하면 균형 조건은 $M/P = L(Y, i)$이다. 소득과 물가 등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자율이 결정된다. 대부자금의 수요·공급으로 설명하는 대부자금설과 구분하며, 외환시장이나 생산물시장의 수요·공급을 직접적인 결정 원리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35. 구매력평가설(purchasing power parity)에서 명목환율의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① 국가간 국민소득의 비율

② 국가간 명목이자율의 차이

③ 국가간 물가수준의 비율

④ 국가간 국제수지의 비율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구매력평가설은 환율이 두 통화의 구매력을 같게 만든다고 본다. 자국통화로 표시한 외국통화 가격은 **자국 물가수준을 외국 물가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표현된다.

핵심 풀이

구매력평가설은 동일한 상품 묶음을 두 나라에서 사는 비용이 공통 통화로 환산하면 같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외국통화 1단위의 가격을 자국통화로 표시한 명목환율을 E, 자국 물가를 P, 외국 물가를 P^*라 두면 $P = EP^*$ 이다.

따라서 절대 구매력평가의 환율은 $E = \frac{P}{P^*}$로, **두 나라의 물가수준 비율**에 의해 정해진다. 외국 물가가 일정한데 자국 물가가 오르면 E가 상승하여 자국통화 가치가 하락한다. 환율을 반대 방향으로 표시하면 비율도 역수가 된다.

국민소득은 수입 수요 등에, 이자율 차이는 국제자본 이동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구매력평가설의 직접적인 환율 결정식은 아니다. 국제수지 역시 외환 수급과 관련되지만 그 국가 간 비율로 구매력평가 환율을 정하지 않는다.

현실에는 운송비·무역장벽·비교역재 등의 요인이 있어 특히 단기 시장환율이 이 관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론이 제시하는 직접적인 결정요인을 묻는 것이므로 ③의 국가 간 물가수준 비율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36. 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는 국경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한다.

② 특정국가의 상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덤핑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를 반덤핑관세라고 한다.

③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긴급히 특정상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특정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고율의 관세를 긴급관세라고 한다.

④ 수출국에서 직·간접적으로 생산 또는 수출에 대하여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였을 때 이를 상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할당관세라고 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수출국의 보조금으로 생긴 가격경쟁상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은 **상계관세**이다. 할당관세는 일정한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율을 조정하는 제도이므로 서로 다르다.

선지별 해설

관세는 상품의 국경 간 이동에 부과하는 조세로, 재정수입 확보나 국내산업 보호 등의 목적을 갖는다. 개별 관세제도는 무엇에 대응하여 관세율을 조정하는지로 구별한다.

① O: 관세는 상품이 관세영역의 경계를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이다. 대표적으로 외국 상품의 수입에 부과되며, 수입가격을 높여 국내 생산자와 수입품 사이의 경쟁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② O: 반덤핑관세는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덤핑 수입에 대응하는 관세이다. 단순히 수입가격이 싸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등 필요한 요건을 전제로 한다. 덤핑으로 생긴 가격차를 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③ O: 긴급관세는 수입 급증으로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 긴급히 취하는 보호조치의 한 형태이다. 추가 관세로 수입을 억제하여 국내산업에 조정할 시간을 주며, 덤핑이나 보조금처럼 불공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제도와 구별된다.

④ X: 수출국의 생산·수출 보조금에 대응하여 그 효과를 상쇄하는 것은 상계관세이다. 보조금 지급 사실과 국내산업 피해 등 관련 요건을 전제로 부과한다. 할당관세는 일정한 수량 범위 등을 기준으로 관세율을 낮추거나 높여 수급·가격 등을 조절하는 제도이지, 외국 보조금 상쇄를 뜻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37.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에 대하여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향후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가격이 하락한다.

② 미국의 반도체 수입가격이 상승한다.

③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산이 감소한다.

④ 미국의 반도체 소비가 증가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관세가 미국 구매자가 부담하는 반도체 가격을 높이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미국의 소비량은 감소**한다. 수입품과 경쟁하는 미국 내 생산이 늘 수 있다는 효과를 소비 증가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선지별 해설

이 문항은 미국의 수입수요 변화가 한국의 수출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통상적인 대국 관세모형으로 판단한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관세는 **수출자가 받는 관세 제외 가격과 수입국 구매자가 지불하는 관세 포함 가격 사이에 차이**를 만든다. 실제 특정 시점의 관세 시행 여부를 묻는 것은 아니다.

① O: 관세로 미국의 수입수요가 줄면 한국 수출자가 받는 **관세 제외 수출가격은 하락**하는 압력을 받는다. 수출공급과 수입수요가 통상적인 기울기를 갖는 대국 모형에서는 관세 부담의 일부가 수출자에게 귀착된다. 국제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소국 모형과는 구별된다.

② O: 미국 구매자가 부담하는 **관세 포함 수입가격은 상승**한다. 한국 수출가격이 일부 내려가더라도 관세로 생긴 가격 차이 때문에 미국 내 구매가격은 관세 부과 전보다 높아진다. 다만 관세율이 25%라는 사실만으로 최종 구매가격도 반드시 정확히 25% 오른다고 계산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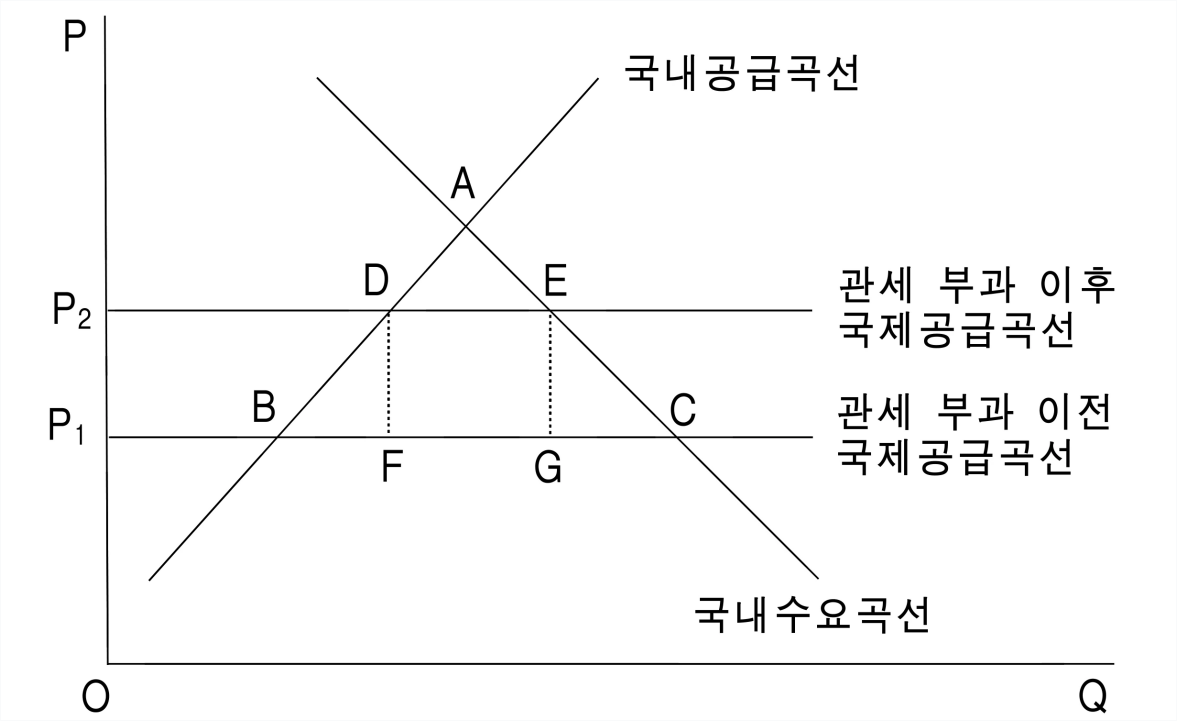
③ O: 수출자가 받는 가격이 내려가고 미국으로의 수출수요가 줄면 한국의 반도체 생산 유인도 약해져 **생산량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는 다른 시장으로의 수출 전환 등 별도의 변화가 없다는 관세모형의 비교정태적 효과이다.

④ X: 미국의 반도체 구매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법칙에 따라 **미국의 소비량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한다. 관세 보호로 미국 내 생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과 미국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주장이다.

따라서 관세 부과 후 미국의 반도체 소비가 증가한다고 한 ④가 옳지 않다.

NoteBase

문 38. 다음 그림에서 소규모 개방경제가 국제가격 P_1에서 관세 $(P_2 - P_1)$를 부과하는 경우 사회후생의 감소분(또는 순사회편익의 감소분)은?



① ADE

② DEGF

③ ABC

④ BDF + CEG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소규모 개방경제의 관세는 **생산 왜곡 손실 BDF와 소비 왜곡 손실 CEG**를 발생시킨다. 정부 관세수입은 국내 이전분이므로 순손실에서 제외하며, 정답은 ④이다.

NoteBase

도식 해설

소규모 개방경제는 국제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관세로 교역조건이 개선되는 이득은 없다. 관세 부과의 순후생손실은 **생산 왜곡 삼각형 BDF와 소비 왜곡 삼각형 CEG의 합**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가격이 P_1에서 P_2로 오르면 국내 생산은 B의 수량에서 D의 수량으로 증가한다. 이 추가 생산분은 국제가격보다 높은 한계비용을 들여 국내에서 생산하므로, 수입으로 조달할 때보다 더 소모한 자원의 가치가 **삼각형 BDF**로 나타난다.

국내 소비는 C의 수량에서 E의 수량으로 줄어든다. 감소한 소비 중에는 소비자의 한계편익이 국제가격보다 큰 부분이 있으므로, 사라진 순편익이 **삼각형 CEG**이다.

관세율에 해당하는 단위당 금액은 $P_2 - P_1$, 관세 부과 후 수입량은 FG의 길이이므로 정부 관세수입은 직사각형 DEGF이다. 이 수입과 생산자잉여 증가분은 국내 다른 주체에게 이전되는 부분이므로 소비자잉여 감소 전부를 사회적 순손실로 보지 않는다. 이전분을 제외한 두 삼각형만 순후생손실로 남는다.

NoteBase

문 39. 레온티에프의 역설(Leontief parado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화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요소 소득은 증가하고, 다른 생산요소 소득은 감소한다.

②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비록 생산요소가 직접 이동하지 않더라도 국가간에 생산요소의 가격이 균등화된다.

③ 노동부존량이 증가하면 노동집약재 생산은 증가하고 자본집약재 생산은 감소한다.

④ 자본풍부국인 미국이 오히려 자본집약재를 수입하고 노동집약재를 수출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레온티에프의 역설은 자본풍부국인 미국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재화를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난 실증 결과이다. 풍부한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수출한다는 헥셔-올린 이론의 예상과 어긋난다.

개념 구분

레온티에프의 역설은 자본이 풍부하다고 여겨진 미국의 수출재가 수입대체재보다 오히려 노동집약적이라는 실증 결과를 가리킨다. 자본풍부국은 자본집약재를 수출할 것이라는 **헥셔-올린 이론의 예상과 반대**였기 때문에 역설이라고 부른다. 미국의 모든 개별 수출품이 노동집약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①은 스톨퍼-새뮤얼슨 정리의 설명이다. 두 재화·두 요소의 통상적인 모형에서 한 재화의 상대가격이 오르면 그 재화에 집약적으로 쓰이는 요소의 실질보수는 오르고 다른 요소의 실질보수는 떨어진다.

②는 요소가격균등화 정리의 설명이다. 국가 간 동일 기술, 완전경쟁, 양국의 두 재화 생산 지속 등 필요한 조건에서 자유무역에 따른 재화가격의 균등화가 요소가격의 균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명제이다. 현실의 모든 자유무역이 임금 등을 반드시 같게 만든다는 뜻은 아니다.

③은 립친스키 정리의 설명이다. 재화가격과 다른 요소의 부존량이 일정한 두 재화·두 요소 모형에서 노동이 늘면 노동집약재 생산은 증가하고 다른 재화 생산은 감소한다.

따라서 자본풍부국 미국의 교역구조가 요소부존 이론의 예상과 반대로 관찰되었다는 설명인 ④가 레온티에프의 역설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40.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자본도피(capital flight) 현상이 발생할 때 이자율과 환율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① 이자율과 환율이 모두 상승한다.

② 이자율은 불변이고 환율은 하락한다.

③ 이자율은 상승하고 환율은 불변이다.

④ 이자율은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자본도피는 국내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들어 **이자율에 상승 압력**을 준다. 동시에 외화를 사려는 수요가 늘어 자국통화 가치가 떨어지므로, 외국통화 1단위당 자국통화로 표시한 환율도 상승한다.

핵심 풀이

자본도피는 정치적 불안 등으로 국내 자산의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한 투자자가 자금을 해외로 옮기는 현상이다. 이 문항은 다른 조건과 정책 대응을 고정한 일반적인 시장 조정 방향을 묻고, 환율은 외국통화 1단위당 자국통화 가격으로 해석한다.

이자율: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국내 차입자가 이용할 자금이 줄고, 국내 자산을 보유하는 데 요구하는 위험보상도 커진다. 대부자금시장에서는 순자본유출 증가가 자금 수요를 늘리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결과 국내 이자율에 상승 압력이 생긴다.

환율: 해외 자산을 사기 위해 자국통화를 팔고 외국통화를 사려는 수요가 증가한다. 외환시장에서 자국통화 가치가 하락하므로, 같은 외국통화 1단위를 사는 데 필요한 자국통화 금액인 환율은 상승한다. 원화 기준이라면 원화가치 하락과 원/달러 환율 상승이 함께 나타나는 방향이다.

따라서 이자율과 환율이 모두 상승하는 ①에 해당한다. 이는 자본도피가 가하는 기본적인 시장 압력이며, 중앙은행의 개입이나 고정환율제도 등에 따라 실제 관측되는 조정 형태는 달라질 수 있다.

NoteBase